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편리함을 주는 글로벌 기업

현대로템(주) 창원공장

이번 탐방은 지난 40여 년간 철도, 중기, 플랜트사업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온 현대로템(주) 창원공장을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총무팀 남호일 대리를 만나 현대로템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현대로템은 국내 빅딜 1호 기업이다. 지난 1999년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의 철도차량사업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한국철도차량(주)로 출범하였다. 지난 2001년 현대자동차 그룹에 편입된 후 2002년부터 현대로템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주요 생산품은 전동차, 고속전철, 경전철, 기관차, 객차 등 철도차량과 K1A1전차 등 군수장비, 플랜트설비 등이다. 그중 주력은 철도 부문으로 현재 최고속도 330km의 한국형 고속열차 KTX-II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 상업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속열차 개발은 일본, 프랑스,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이다. '꿈의 열차'라 불리는 도시형 자기 부상열차도 개발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운영된다. 현대로템의 빼놓을 수 없는 생산품 중의 하나는 전차이다. 특히 21세기 네트워크 전장환경에 맞는 디지털 기반의 인간공학적인 설계로 전투효율을 최적화한 K2전차는 신개념의 전차로 터키에 수출하는 등 그 기술력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Green Wheel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되어...

현대로템 창원공장에 녹색바람이 불고 있다. 환경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창원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공동으로 지역 내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에는 Green Wheel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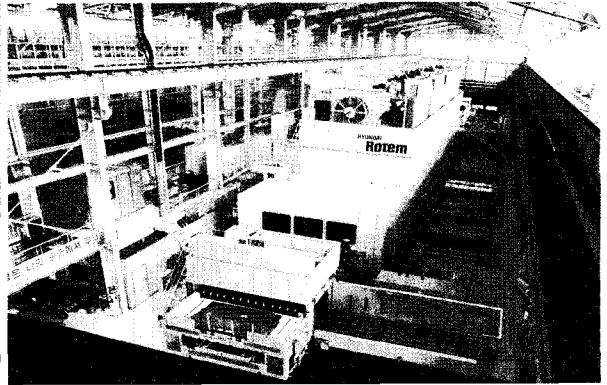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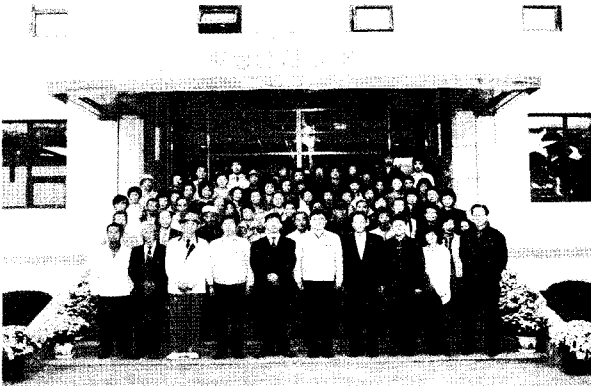
이러한 성과는 직원들의 의지, 회사의 지원, 창원시의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회사는 사내에 33개 소의 자전거 보관대와 20여 개의 에어호스를 설치해 관리와 보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고, 단체 상해보험에도 가입했다.

이밖에 사내 자전거 동호회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자전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샤워시설 증축,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호응해 620여 명의 직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고, 130여 대의 자전거를 업무용으로 이용 중이다. 이제는 자전거로 무리 지어 출퇴근하는 모습이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

현대로템 창원공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중시하여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내 4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목욕봉사, 시설보수, 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6년에 자발적으로 조직된 사내 사회봉사단은 580명 28개 팀으로, 연간 12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15년을 넘게 유지해온 경남 거창군 북상면과의 1사1촌 자매결연은 이제는 끈끈한 정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사내식당의 쌀은 전량 북상면 생산품을 사용하고, 명절엔 특산물 판매행사도 실시하고 있다. 여름엔 하계휴양소를 덕유산자락인 북상면에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함에 따라, 주민들도 휴양소에 자발적으로 옥수수와 고기를 들고 와 바비큐 파티를 제안하는 등 활발한 교류로 농결연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인간존중의 사명감으로...

총무팀의 남호일 대리는 지난 5년 동안 현대로템의 방화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안전·소방 업무는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공헌활동이라면 개인의 사회적 책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표정이 왠지 절연하다.

소방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뿐 아니라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자기계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작업장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이 높은 도장공정은 공간 자체를 분리하였고, 가스계소화설비와 스프링클러를 이중으로 설치하였다고 한다.

인명안전을 위한 초기경보를 위해 지난 2007년에는 약 5억 원을 투입하여 종합방재센터를 새로이 구축하고, 사내 25개의 P형 수신기를 R형으로 통합 설치하였다. 내년엔 나머지도 전량 통합할 계획이다. 소방법 상 감지기 설치가 면제된 장소에도 최신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탐방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생전에 대나무 같이 곧게 살라는 의미로 조성했다는 대나무 숲길이 눈길을 잡는다.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는 행복한 소통의 중심에 서고자 노력하는 현대로템이, 고객에게 편리함과 행복을 주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탐방을 마쳤다. ☺